
보도자료

2011년 4월 28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전영만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실 설재진 사무관(☎750-1737) lunanstellar@kcc.go.kr

최시중 위원장, 한-호-뉴 통신장관회의 참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4월 28일(목) 호주 타즈매니아 호바트에서 '브로드밴드를 통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주제로 열린 제6차 한·호·뉴 통신장관회의에 참석하였다.

최시중 위원장은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최국인 호주의 스티븐 콘로이 광대역통신디지털경제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개회 연설을 하였다. 최 위원장은 연설에서 브로드밴드의 '확산'을 넘어선 성공적인 '활용'을 주제로,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정보윤리의 확립, 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그린 ICT로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회식에 이어 최시중 위원장은 호주 및 뉴질랜드 장관과 함께 3국의 시연회 장소를 찾아가, 각국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준비한 시연행사를 관람했다. 이 날 함께 관람한 호주 및 뉴질랜드 대표단들은 삼성전자, KT, SKT, ETRI, 현대 U&I, SK 브로드밴드 등 한국의 우수 기업과 연구소가 선보인 세계적 기술력에 놀라움을 표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후 최시중 위원장은 뉴질랜드 스티븐 조이스 경제개발부 정보통신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국-뉴질랜드 간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보보호, 방송통신 융합 등 다양한 주제가 오고 간 이 날

면담에서 스티븐 조이스 장관은 한국의 성공적인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 브로드밴드 구축 과정 및 현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눈부시게 성장한 한국의 IT 산업과 뛰어난 인프라 구축 능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진행 중인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양국 모두 향후 MoU의 재체결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며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 * 뉴질랜드의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 사업은 ‘초고속 브로드밴드 구축전략’과 ‘농촌 브로드밴드 구축전략’을 포괄하여 진행 중
 - 초고속 브로드밴드 구축전략(ultra fast broadband initiative): 뉴질랜드 33개 주요 지역을 선정, 10년 내에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5%에 100Mbps속도의 서비스 제공 목표, 총 사업비는 약 15억 뉴질랜드 달러(약 4조원)
 - 농촌 브로드밴드 구축전략(Rural broadband initiative): 향후 6년 내 농촌 학교의 93%, 농촌 가구의 80%에 최저 속도 5Mbps의 서비스 (나머지 20%는 최저 1Mbps) 제공 목표

오후에는 호주 광대역통신 디지털경제부 스티븐 콘로이 장관을 만나 양국의 방송통신 현황에 대해 설명을 주고받으며,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총 44조원 규모의 호주 국가 브로드밴드 구축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브로드밴드 망 구축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호주 국가브로드밴드 구축사업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정보의 공유 및 한국 기업과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 등을 요청하였다.

- * 호주의 국가브로드밴드구축사업(National Broadband Network) : 향후 10년 내, 호주 전역의 가정과 기업 93%에 100Mbps 급 광케이블(FTTP) 구축하고 나머지 7% 지역(주로 도서 지역)은 차세대 무선 및 위성 서비스를 이용한 연결을 통한 최소 12Mbps 급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을 목표, 총 사업비는 357억 호주 달러(약 44조원)